

^^^ 햇살 좋은 집 하은·신우네 (2024년 3월호)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1)

♣ 이곳 모습



친족(Chin)학생 가정방문(with P, J 장로님)

♣ 감사

1. 미얀마 친족난민학교(CSO) 중등과정 교사로 참여를 약속해 주신 교육전문가 두 분 장로님께 감사
2. 난민학교의 온라인과 컴퓨터 수업을 위한 노트북 구입에 감사. 수입이 없는 여섯 명의 교사들에게 매달 백 링깃의 후원이 연결됨에 감사. 다니엘선교센터의 후원으로 난민교회에 긴급식량을 제공함에 감사
3. 이보배선생이 라웁(Raub)지역 캄퐁아라(Kg Ara) 원주민교회 협력사역자로 임명됨에 감사. 라웁훈련센터 일부를 용도에 맞게 개조함에 감사
4. 신우와 김은유선생이 땀겨열에서 잘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음에 감사

♣ 함께

5. 아라 원주민 교회의 화장실/전기설비/창문수리를 위해, 신실한 현지인 발굴과 훈련을 통해 자체 원주민 사역자를 세우도록
6. 4월 셋째주간 캄퐁서물(Kg Semul) 등 원주민교회 방문: 사역자훈련, 개발사업, 축전기 등을 위해
7. 미전도지역인 캄퐁사공(Kg Sagong)에 핵심사역자(가정)가 세워지도록. 아동교육, 전도와 예배를 위한 다목적 미션홈(교회당) 건축과 필요를 위해
8. 자원봉사자, 단기팀, 현장의 필요와 지역 네트워크를 잘 준비하도록. 건강, 안전, 비자경비, 후원목표를 위해

♣ 하은 & 신우 (고1)

9. 하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기쁨에 감사
10. 신우. 기말시험을 잘 마침에 감사. 말레이시아 유스코스타와 사역자 가정캠프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도록

♣ 기존 선교정책을 뛰어 넘는 협업

한국 선교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선교정책이 있다. 1854년부터 1893년까지 중국에서 40년간 선교활동을 한 네비어스(John L. Nevius)가 정리한 「선교사의 토착교회 설립 및 육성 방안」 네비어스 ‘3자 원칙’ 즉, ‘네비어스 선교정책’이다. 본토인이 본토인에게 전도하는 자전(自傳, self-supporting), 본토교인이 본토교회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자립(自立, self-supporting), 그리고 본토교회 문제를 본토교인들이 처리하는 자치(自治, self-governing)가 그것이다.

이 선교정책은 여러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교회지도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하면서 복음전도 사역을 해야 했다. 둘째, 선교사는 본토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역과 기관들을 개발해 주었다. 셋째, 본토교회가 스스로 목회자를 세우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넷째, 예배당은 본토교회 교인들의 헌금과 노력으로 마련하되 본토양식으로 지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매년 본토교회 지도자들에게 집중과정으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야 했다. 이러한 정책은 본토교회 지도력 성장을 통해 본토교회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장점이 있었다.

언더우드 등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이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본토교회는 교회유지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쏟으며 사회봉사와 구제, 사회적 현안에 소극적이었고, 봉건적 인습으로 인해 파송국과는 달리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계급구조가 나타났다. 교회지도자 훈련도 선교사들이 독점함으로 토착교회 지도자들의 지적수준과 신학발전에 한계를 가져 왔다는 비판과 반성이 있었다.

그럼, 이곳 선교현장에서는 이 3자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선교에 있어 이곳 교회는 이슬람을 국교로 인정하는 권위적인 정부와 경쟁하고 있다. 무슬림에게 복음전도는 위법이지만, 무슬림은 타종교인에게 전도할 수 있다. 정부는 이슬람 개종자에게 즉시, 금전/주택/교육/세금 등의 막대한 지원과 혜택을 준다. 그러나 타종교로의 개종은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구금한다. 이는 본토교회가 미전도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와 개발사역을 지속하는 이유이다.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목회자지원과 교회운영조차 어려운 난민과 원주민 지역교회를 위해 주일학교 교육, 지도자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삼자정책은 여전히 유용하다. 본토교회와 선교사는 교회유지와 관리, 사회봉사와 구제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지도자 훈련에 있어서도 현지 신학교와 교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토착교회 지도자들의 지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외 단기팀과 장단기 사역자들은 본토교회의 부족함을 메우고, 복음과 찬양이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며, 말씀이 삶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23일

예배의 때를 살아가는 김은유, 이보배 가정 올림

※ 후원방법

- 동역: 기도 동역자, 재정 후원자(단체) 및 단기사역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후원: 국민은행 049790-29-000045 (김은유)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본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02 455 0261)
- 사역: 사역목적 후원이나 개인선물은 OMF 사무실(02 455 0261) 또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 패밀리멤버: OMF 패밀리멤버(매달 오천원 이상 단체에 후원)가 되시면 관련서적과 선물을 보내드려요. (사무실로 문의)